

11-1

11-1

11-1

11-1

2001년 4월

2
0
0
1
•
4

2
0
0
1
•
4

2
0
0
1
•
4

2
0
0
1
•
4

2
0
0
1
•
4

2
0
0
1
•
4

V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1년 4월

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5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41
제3장 2001년 경제전망	51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65

부록

경제정책정보	73
주요경제통계	78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허찬국
	이인실
연구위원	권영민
선임연구원	김주호
	김창배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2. 대외거래부문
3. 물가부문
4. 통화·금융부문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2. 원자재가격
3. 국제금리·환율

제3장 2001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최근 경제현황에 대한 인식
2. 향후 경제정책 방향

제 1 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경제성장 : 내수 둔화로 성장세 큰 폭 둔화

- 2000년 4/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소비와 투자 등 내수의 신장세가 급격히 둔화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6% 성장에 그침.
- 민간소비는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6.2%)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에 그침.
- 설비투자는 기계류에 대한 투자증가세(11.6%)가 급격히 둔화되는 가운데 운수장비에 대한 투자가 감소세(-6.0%)를 보임에 따라 3/4분기(31.9%)보다 크게 낮아진 8.1% 증가에 그침.

<표 1> 국내총생산(95년가격 기준)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GDP)	10.9	12.6	9.7	9.2	4.6	8.8
(계절조정)	(10.9)	(1.6)	(1.6)	(2.4)	(-0.4)	(8.8)
민간소비	11.0	10.8	8.9	5.7	3.2	7.1
정부소비	1.3	1.5	1.1	0.5	1.8	1.3
건설투자	-10.3	-6.8	-4.2	-3.5	-2.5	-4.1
설비투자	36.3	62.6	41.6	31.9	8.1	34.3
총수출	15.8	27.1	21.4	22.5	16.4	21.6
총수입	28.8	31.6	20.6	22.4	8.2	20.0
국민총소득(GNI)	9.4	5.5	3.1	3.6	-2.2	2.3

주 : 계절조정계열은 전분기대비(%)

자료 : 한국은행

- 계절변동 조정계열로 보면 2000년 4/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전분기대비 0.4% 감소
- 2000년 4/4분기중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수입원자재가격 상승과 주요 수출품가격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어 전년동기대비 2.2% 감소

생산활동 : 둔화추세 멈추고 소폭 반등 조짐

- 지난 해 9월 이후 둔화추세를 지속하던 생산활동지표들이 1월을 저점으로 소폭 반등하는 조짐
 - [생산] 지난 해 9월(15.2%) 이후 금년 1월(0.1%)까지 지속적인 둔화추세를 보여온 산업생산이 2월중에는 8.6% 증가
 - [출하] 1월중 2.0% 감소했던 출하는 2월중에는 4.4% 증가세로 반전
 - [재고] 재고가 2월중 전월비로 0.7% 감소하여 10개월만에 처음으로 하락
 - [평균가동률] 평균가동률도 1월(73.9%)보다 높은 74.9%로 상승
- 그러나 본격적인 반등세로 보기에는 아직 미흡
 -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2월중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3월 이후 더욱 불투명해진 해외여건은 본격적인 반등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표 2> 산업생산 및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9	2000							2001	
	연간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생 산	24.2	16.8	23.6	18.4	19.8	7.6	6.5	4.7	0.1	8.6
· 중화학	29.3	20.4	27.3	22.6	24.3	10.0	8.3	7.2	2.1	10.2
· 경공업	9.6	3.3	10.5	4.0	3.6	-3.8	-2.7	-7.8	-11.5	1.5
출 하	25.1	16.6	25.2	18.1	19.8	5.7	3.8	3.9	-2.0	4.4
· 내 수	21.1	12.7	24.1	15.1	10.5	3.3	3.0	0.3	-7.8	0.3
· 수 출	30.6	21.7	26.7	22.2	32.6	8.6	4.7	8.6	5.5	9.6
재 고(원계열)	2.1	16.2	10.2	9.6	13.4	16.2	17.9	16.2	16.3	15.1
· 계절조정	2.1	16.2	1.7	0.8	5.3	7.4	0.6	2.2	0.9	-0.7
평균가동률(%)	76.5	78.3	79.4	78.8	79.9	75.0	75.2	73.9	73.9	74.9

주 : 재고는 기말기준이며 전월(분기)대비(%)

자료 : 통계청

고용 : 실업률 및 실업자수 증가

-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업률과 실업자수가 11월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
-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실업률은 10월(3.4%)을 저점으로 상승, 금년 2월에는 5.0%로 높아짐.

<표 3> 고용관련지표 추이

	1999	2000							2001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3월
경제활동참가율(%)	60.5	60.75	59.5	61.3	61.3	60.8	61.1	59.9	58.5	58.5	59.8
실업자(천명)	1,353	889	1,092	840	809	817	797	893	982	1,069	1,035
실업률(%)	6.3	4.1	5.1	3.8	3.6	3.7	3.6	4.1	4.6	5.0	4.8
계절조정실업률(%)	6.3	4.1	4.5	3.9	3.9	3.9	3.6	4.1	4.1	4.2	4.2
상용직비중(%)	48.3	47.6	47.6	47.2	47.7	47.9	47.8	48.1	49.2	49.8	49.6
임시직(1년 미만) 비중(%)	33.4	34.3	34.8	34.1	34.3	34.1	34.0	34.5	35.0	34.8	34.3
일용직(1개월 미만) 비중(%)	18.3	17.6	17.7	18.7	18.1	18.0	18.2	17.4	15.8	15.4	16.1

자료 : 통계청

- 3월중에는 실업률이 전월에 비해 0.2%p 낮아지고 실업자수는 3만 4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사철이 시작되는 3월의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해 볼 때 실업자수는 오히려 증가*
 - * 계절조정 실업률은 4.2%로 2월(4.2%)과 동일
 - * 계절조정 실업자수는 93만 4천명으로 2월(91만 6천명)보다 1만8천명이 증가
- 또한 3월의 실업률 및 실업자수 감소폭은 예년에 비해 작음.

<표 4> 2월과 3월 실업률 및 실업자수 추이

	실업자수(천명)			실업률(% , %p)		
	2월(A)	3월(B)	(B)-(A)	2월(C)	3월(D)	(D)-(C)
1999년	1,781	1,703	-78	8.6	8.0	-0.8
2000년	1,121	1,028	-93	5.3	4.7	-0.6
2001년	1,069	1,035	-34	5.0	4.8	-0.2

소비 : 증가세 급감

- 지난 해 하반기 이후의 소비위축이 지속되고 있음.
- 도소매판매는 금년 1월 2.2%, 2월 1.3%의 증가에 그쳐 지난 해 하반기 이후의 급격한 둔화추세를 지속
- 내수용소비재출하는 휴대용전화기 등 내구재판매 부진지속으로 지난해 9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

<표 5> 소비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1999	2000							2001	
	연간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도소매판매	13.0	9.8	15.1	13.3	8.0	3.9	4.0	2.3	2.2	1.3
· 도매	11.4	9.1	14.6	11.9	6.3	4.5	3.8	3.5	1.4	3.7
· 소매	9.8	11.1	12.7	14.2	11.1	6.7	7.7	4.6	6.7	0.2
내수용소비재출하	21.1	6.4	17.7	13.5	-1.8	-1.7	1.0	-6.2	-10.8	-4.7
· 내구재	48.0	5.1	35.4	21.6	-16.9	-10.6	-7.2	-14.7	-22.4	-15.4
· 비내구재	9.6	7.2	8.7	9.3	7.6	3.6	6.3	-1.6	-4.3	2.5

자료 : 통계청

투자 : 설비투자, 건설투자 모두 부진

- 지난 해 11월 이후 감소세로 반전된 설비투자의 부진이 금년 들어서도 지속
- 설비투자는 정보통신, 자동차, 일반산업용기계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1월 8.8% 감소에 이어 2월중에도 5.3% 감소
- 그러나 2월중 설비투자와 기계류내수출하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국내기계수주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설비투자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건설투자의 부진은 지속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2월중 민간발주 주거용 건물공사 증가로 지난 해 6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증가율(5.8%)로 전환되었으나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지난 해 4/4분기에 이어 1~2월중에도 감소세를 지속

<표 6> 설비 및 건설투자 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9	2000							2001	
	연간	연간	1/4	2/4	3/4	4/4	11월	12월	1월	2월
국내기계수주	30.9	11.7	15.6	8.0	7.0	17.3	15.2	41.7	-14.5	2.8
기계류수입액	33.5	40.6	64.9	57.3	53.5	1.8	1.6	-7.8	8.8	9.5
설비투자추계	43.5	30.1	59.3	34.8	29.5	5.7	-1.1	-2.2	-8.8	-5.3
설비용기계내수출하	32.3	37.5	65.0	43.9	39.1	12.6	6.9	11.9	-7.7	-4.6
국내건설수주	0.8	15.1	70.9	15.9	7.9	-7.0	-7.5	0.7	-32.1	-14.6
건설기성	1.2	-3.1	-6.4	-2.4	-3.1	-1.2	-2.9	-0.1	-0.6	5.8
건축허가면적	42.3	11.8	90.6	35.6	33.4	-35.2	-23.1	-56.7	2.7	-4.8

자료 : 통계청

경기 : 하강국면 지속

-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증가세마저 크게 둔화되면서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하강속도는 완만해짐.

· 이는 수출증가세(3.1%)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감소세(-2.0%)를 보였기 때문

<표 7> 수출입 추이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1999	2000				2001			
		연간	연간	1/4	11월	12월	1월	2월	3월	1/4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239.3	117.9	4.4	8.3	18.0	3.0	7.5	13.8	24.3
	수출	1,436.9	1,722.7	392.7	149.9	149.8	127.4	134.2	143.4	405.0
	증가율	8.6	19.9	29.8	5.6	0.1	4.7	5.8	-0.6	3.1
	수입	1,197.5	1,604.8	388.3	141.6	141.8	124.4	126.7	129.6	380.7
	증가율	28.4	34.0	51.9	20.7	4.7	-1.2	5.4	-8.8	-2.0

자료 : 산업자원부

수출 : 신장세 둔화 지속(1/4분기중 3.1%)

- 금년 1~2월중 5.3%의 증가율을 보이며 회복세가 기대되었던 수출이 3월중에는 감소세(-0.6%)로 전환됨에 따라 1/4분기중 수출은 3.1%의 소폭 신장에 그침

<주요 수출둔화요인>

- 해외여건변화에 민감한 수출구조 :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 특히 IT부문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최근 미국과 일본의 경기둔화와 반도체 경기의 악화가 우리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2000년) : 미국(21.8%), 일본(11.9%)
 - * IT부문의 수출비중 : 22.8%(96년)--> 29.7%(2000년)

- 컴퓨터,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철강 등 주요품목의 단가하락 지속

<표 8> 주요품목별 수출단가추이

	2000				2001		
	3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반도체(64MDram 현물, \$/개)	5.93	5.81	4.16	3.22	3.19	2.80	2.34
철강(아연도강판, \$/톤)	455	415	385	385	385	365	365
석유화학(LDPE, \$/톤)	800	770	690	680	710	605	710
컴퓨터(LCD, \$/15')	625	-	-	-	365	340	320

자료 : 산업자원부

- 특히, 3월중에는 해외경기 악화에 대우차 수출차질과 신공항개항에 따른 수출선적 차질 우려가 겹치면서 0.6% 감소
- 품목별로는 컴퓨터, 반도체 등 IT품목에 대한 수출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선박, 기계,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음. 섬유류는 중국 등 개도국과의 경쟁격화, 일본지역에 대한 수출감소로 큰 폭의 감소세

<표 9> 품목별 수출증가율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품 목 명	1999	2000					2001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1-20
중화학제품	14.8	38.5	28.1	32.1	8.5	25.2	9.3	5.6	4.7
반 도 체	10.8	17.4	47.0	64.9	24.7	38.0	-1.7	-49.1	-18.4
자 동 차	12.3	45.1	-4.6	23.6	19.7	18.3	6.5	-1.7	15.2
철강제품	-13.4	21.8	22.3	4.2	-3.8	10.4	2.3	0.2	-2.9
석유화학	5.6	44.8	60.1	29.9	11.1	34.1	1.4	-2.2	-1.1
일반기계	4.0	32.5	40.8	33.2	17.0	30.4	32.7	46.8	46.3
컴 퓨 터	103.1	119.8	75.1	60.2	-12.7	40.9	-20.3	-6.0	-7.1
무선통신기기	102.8	84.6	39.4	41.9	44.4	49.9	17.5	19.3	12.3
가정용전자	22.5	42.0	17.2	14.5	4.6	18.5	-5.0	-1.5	-2.0
선 박	-6.5	44.2	7.5	32.6	-12.2	9.9	236.0	35.3	133.0
경공업제품	4.4	17.8	11.4	6.9	-1.7	8.0	-12.5	6.6	-7.9
섬유직물	3.7	20.2	14.5	7.1	-1.3	9.4	-15.1	5.5	-3.6
섬유제품	6.8	10.3	7.9	2.9	-4.6	3.7	-18.7	-2.7	-14.2
타 이 어	-3.7	3.6	-7.6	-8.5	-4.6	-4.4	1.5	3.9	-9.1

자료 : 산업자원부

- 지역별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동남아국가에 대한 수출은 부진한 반면 중국, 중동, 중남미 등 3中 지역과 EU지역에 대한 수출은 호조

- 이는 미국, 일본 등 주력시장의 수출여건 악화로 수출업체들이 3중지역 등 대체시장에 대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

<표 10> 주요지역별 수출증가율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국 가 명	1999	2000					2001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1~20
미 국	29.2	38.9	24.7	36.0	15.6	27.6	4.8	-0.6	-2.0
E U	11.4	25.5	16.9	19.4	5.4	15.7	7.8	2.8	10.5
일 본	29.6	50.5	38.5	37.7	3.4	29.0	7.6	2.9	-3.1
아 세 안	15.5	21.0	20.1	24.0	-4.2	14.2	-11.2	0.1	-10.4
중 국	14.6	37.2	37.3	44.4	23.1	34.9	1.5	18.9	16.8
중 동	-2.9	29.3	20.5	21.4	6.6	18.6	-6.5	13.9	5.6
중 남 미	-2.5	23.6	7.3	22.9	-12.7	8.4	58.4	20.1	23.4

자료 : 산업자원부

수입 : 금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1/4분기중 -2.0%)

- 국내경기둔화와 설비투자감소의 영향으로 지난 해 말 급격한 둔화추세를 보인 수입이 금년 들어서는 감소세로 전환
- 지난 해 3/4분기까지 4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던 수입이 12월에는 4.7%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금년 1월(-1.2%)과 3월(-8.8%)에는 감소세를 보임.
- 2월중 수입이 플러스 증가율을 보인 것은 석유수입부과분 인상*에 따른 원유의 先통관(약 5억달러로 추정)의 영향 때문
- * 3월 1일부터 2,066원/배럴에서 2,225원/배럴로 인상

- 용도별로는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재 수입은 회복조짐
- 원자재수입은 국내경기침체와 원유도입단가의 하락세의 영향으로 감소
- 자본재수입은 설비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감소
- 소비재수입은 지난 해 10월 이후 둔화추세를 보여 왔으나 3월중에는 큰 폭의 증가세(15.9%)

<표 11> 용도별 수입

단위 : 전년동기비(%)

		2000년			2001년		
		연간	11월	12월	1월	2월	3.1~20
총수입(증가율)		34.0	20.7	4.7	-1.2	5.4	-10.4
증가율	원자재	34.0	25.2	9.7	-3.5	12.7	-13.8
	자본재	35.8	13.9	-1.4	0.5	-3.8	-11.4
	소비재	26.7	24.4	5.2	4.9	3.0	15.9
비중	원자재	50.8	53.9	51.9	52.4	55.5	49.6
	자본재	40.0	37.1	38.4	38.1	36.2	39.7
	소비재	9.3	9.0	9.8	9.5	8.3	10.7

자료 : 산업자원부

경상수지 : 경상수지 흑자 지속(1~2월중 14.4억달러)

- 경상수지는 수입감소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지속과 소득수지의 흑자로 1~2월중 14.44억달러 흑자 시현. 지난 해 같은 기간(10.6억달러)에 비해 흑자규모는 3.6억달러

확대

- 1~2월중 상품수지는 수입감소의 영향으로 15.5억달러 흑자(2000년 1~2월중 15.0억 달러)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와 특허권 사용료 등 기타서비스 수지가 적자가 지속되면서 6.5억달러 적자(2000년 1~2월중 6.7억달러 적자)
- 소득수지는 차입금 상환에 따른 이자지급감소로 1~2월중 4.6억달러 흑자(2000년 1~2월중 50만달러 적자)

<표 12> 경상수지

단위 : 억달러

	1999	2000					2001		
	연간	연간	1~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2월
경상수지	244.8	110.4	10.8	10.2	10.6	12.4	6.5	7.9	14.4
상품수지	283.7	166.0	15.0	13.7	11.0	17.0	4.5	11.0	15.5
서비스수지	-6.5	-39.7	-6.7	-2.8	-3.0	-4.5	-1.9	-4.6	-6.5
소득수지	-51.6	-22.0	0.005	-1.1	2.5	-0.3	3.0	1.6	4.6
경상이전수지	19.2	6.2	2.5	0.4	0.035	0.3	0.9	-0.2	0.7

자료 : 한국은행

자본수지 : 1~2월중 22.3억달러 적자

-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IMF차입금 조기상환 등으로 1~2월중 22.3억달러 적자

- 직접투자수지는 월마트코리아, 두루넷, (주)옥션, LSF코리아 등에 대한 직접투자자금의 유입으로 1~2월중 1.0억달러 흑자
- 증권투자수지는 1월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입(23.5억달러)으로 1~2월중 22.8억달러 흑자
- 기타투자수지는 IMF 지원자금 조기상환(1~2월중 19.8억달러), 단기무역신용 상환 및 예금은행의 차입금 상환으로 1~2월중 45.6억달러 적자
- 기타자본수지는 해외이주비 지급으로 1~2월중 0.5억달러 적자

<표 13> 자본수지

단위 : 억달러

	1999	2000					2001		
	연간	연간	1~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2월
자본수지	20.4	117.3	55.7	-6.7	-19.8	2.3	-14.4	-7.9	-22.3
투자수지	24.3	122.7	56.6	-6.4	-19.5	2.5	-14.3	-7.5	-21.8
직접투자	51.4	34.8	1.6	4.2	2.5	6.1	-0.0	1.0	1.0
증권투자	86.8	121.1	32.8	0.5	5.1	3.2	20.7	2.1	22.8
기타투자	-113.8	-33.2	22.2	-11.1	-27.1	-6.8	-34.9	-10.6	-45.6
기타자본수지	-3.9	-5.4	-0.8	-0.4	-0.3	-0.2	-0.1	-0.3	-0.5

자료 : 한국은행

3.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 금년 들어 빠른 증가세

- 지난해 10월 이후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금년 들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14>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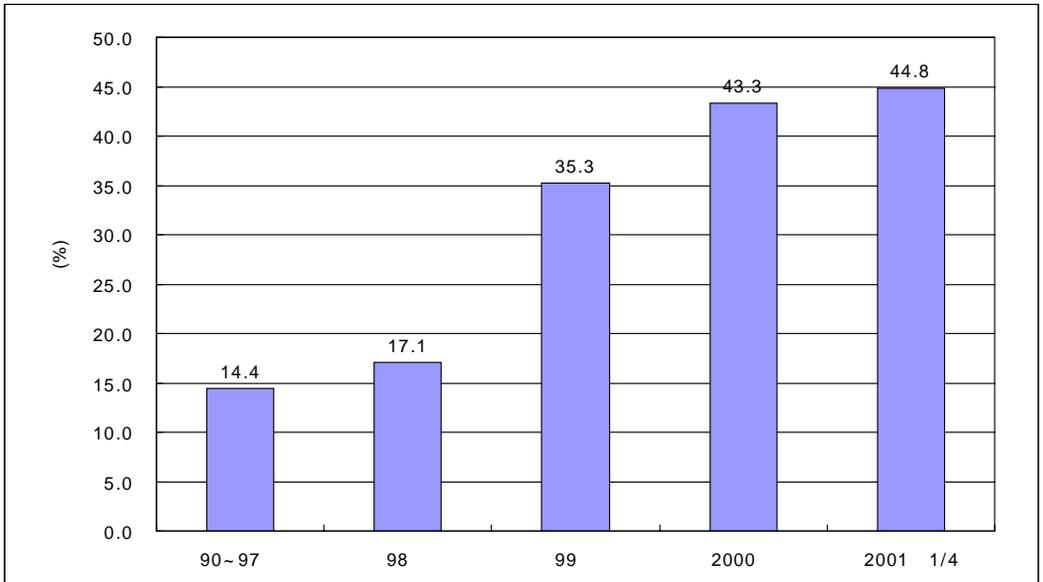
	전년동기비					전월비			전년말비		
	2000년					2001년	2001년			2001년	2000년
	1/4	2/4	3/4	4/4	연간	1/4	1월	2월	3월	3월	3월
소비자물가	1.5	1.4	3.2	2.9	2.3	4.2	1.1	0.2	0.6	1.9	0.8
농축수산물	3.7	0.6	4.3	-0.8	1.9	0.2	2.8	0.1	1.5	4.4	1.4
공산품	1.7	0.7	1.9	2.0	1.6	3.6	0.4	0.2	-0.3	0.3	-0.2
공공서비스	3.8	5.2	8.9	10.5	7.1	13.4	3.0	0.2	0.9	4.2	1.9
개인서비스	0.9	2.3	2.4	2.5	2.0	2.8	0.2	0.6	1.4	2.2	1.9
생산자물가	2.2	1.9	2.7	1.6	2.1	2.5	0.5	0.2	0.4	1.1	0.0
농축수산물	0.1	-3.9	-1.4	-5.2	-2.6	-4.1	3.4	1.0	5.1	9.7	0.6
공업제품	2.5	2.2	2.9	1.8	2.4	2.6	-0.1	0.2	0.2	0.2	-0.1
서비스	1.1	1.3	2.0	1.7	1.5	3.2	0.8	0.0	0.2	1.0	-0.2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소비자물가 : 금년 1/4분기중 전년동기비 4.2% 증가해 지난해 4/4분기(2.9%)에 비해 높은 증가율. 전월비는 1월 1.1%, 2월 0.2%, 3월 0.6% 증가
- 생산자물가 : 금년 1/4분기중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해 지난해 4/4분기(1.6%)에 비해 증가세 빨라짐.

- 1/4분기중 주요 물가상승요인: 농축수산물 가격과 공공 및 개인 서비스요금
 - 농축수산물의 경우, 1월중 설수요 증가 및 폭설과 최근의 광우병 및 구제역 파동에 의한 영향으로 금년 들어 전년말 대비 4.4% 상승
 - 공공서비스요금은 의보수가 및 상하수도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말대비 4.2%, 개인서비스요금은 각종 학원비 및 사립대등록금 인상 등으로 전년말대비 2.2% 상승
- 올 1/4분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공공요금의 기여도는 44.8%로 90년대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4. 통화 · 금융부문

통화정책 : 1/4분기중 물가상승압력으로 통화운용의 어려움 가중

- 금년 들어 통화당국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축적인 통화운용기조는 유지되었으나 1/4분기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등 통화운용의 폭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
- 통화당국은 경기진작을 위해 지난 2월 단기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나 이후 물가상승 우려감이 가중됨에 따라 3월과 4월에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0년 중 5~6%대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M3증가율은 금년 1월중에는 투신사 등 제2금융권의 수신 증가로 8.2%까지 상승

<표 15> 주요 통화총량 추이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증가율(%)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연간	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본원통화	-7.2	12.1	21.4	21.8	22.6	24.4	21.4	19.0	16.8	14.7	11.3	15.5	8.6	11.4
M2	19.0	27.9	29.6	33.6	36.3	37.8	34.9	30.6	28.5	25.7	24.9	26.1	20.7	17.8
MCT	7.5	7.7	15.4	16.2	17.3	17.5	15.7	14.2	13.6	12.2	12	13.1	10.1	9.3
MCT+	7.4	5.3	15.4	17.6	18.2	18.5	16.8	15.8	15.3	14.0	14.1	15.9	13.1	11.8
M3	13.9	11.4	5.0	5.0	5.1	4.9	5.3	6.2	6.7	6.6	6.7	8.2	-	-

주 : 1) MCT+=MCT + 표지어음 + RP + 금융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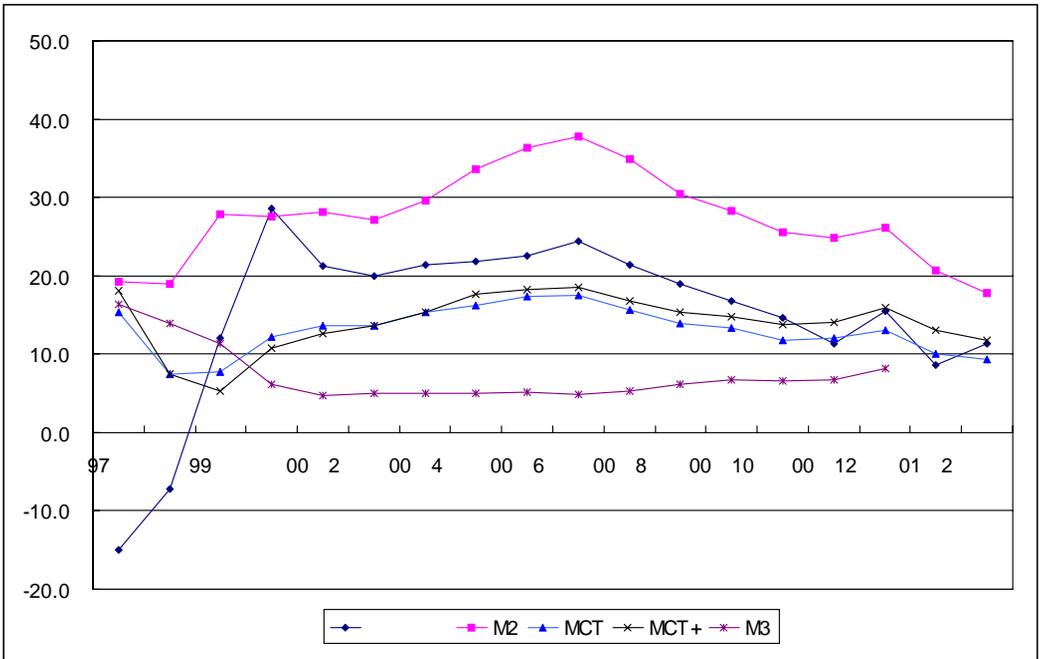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M2 및 MCT+ 증가율은 2000년 8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금년 들어서는 둔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3월중 M2증가율은 17.8%로 1월과 2월의 26.1%와 20.7%에서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주로 은행대출 등 민간신용의 증가폭이 축소된 상황에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공급도 크지 않았기 때문
- M2증가율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MCT+증가율도 3월중 11.8%로 1월과 2월의 15.9%와 13.1%에서 크게 하락하였으나 은행신탁의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하락 폭이 M2보다는 작았음.

<그림 3> 주요 통화총량 추이



주 : 1) MCT+ = MCT + 표지어음 + RP + 금융채
 자료 : 한국은행

기업자금사정 : 회사채 발행 다소 호조, 대출 부진

- 지난해 월평균 은행대출이 5조 4,000억원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데 비해 금년들어 월평균 은행대출은 1조 2,600억원에 머무르고 있음.
- 이중 가계대출은 은행 대출금리 인하 등 대출확대 경쟁으로 1월을 제외하고는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 기업대출은 저조한 양상
- 특히 대기업 대출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자금수요가 크지 않은 가운데 우량기업의 경우 회사채나 CP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은행대출을 상환하면서 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 대출도 1월중에는 전년말 일시적인 감축분의 재대출로 인해 8,000억원이상 증가하였으나 이후 계절적인 자금비수기와 경기둔화로 인해 2월에는 감소로 돌아섰고 3월에도 4,700억원 증가에 그침.

<표 16> 은행대출추이¹⁾

단위 : 증감액, 억원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	2	3
은행(신탁포함) ²⁾ 대출	126,390	213,133	162,125	73,031	15,027	9,037	13,744
대기업대출	36,044	29,672	29,394	-22,608	30,831	-6,342	-3,447
중소기업대출	27,526	68,105	47,156	19,206	8,045	-1,034	4,700
가계대출	46,145	94,609	50,009	72,818	-1,467	14,830	24,932

주 : 1) 부실채권정리,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장부상의 증감요인 제외, CLO포함.

2) 차주별 대출금 집계와의 차이는 공공 및 기타법인에 대한 대출

자료 : 한국은행

- 작년의 경우 3/4분기를 제외하고 연중내내 순상환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기업자금난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회사채 발행이 정부의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금년 들어 순증기조로 전환
- 2월의 경우 우량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고금리 회사채 및 차입금을 저금리 회사채로 차환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 Primary CBO 및 산업은행 신속 인수분을 제외한 일반 공모 회사채가 99년 1월 이후 최대인 1조 3,000억원이나 순발행
- 3월 들어 회사채발행은 1조 2,689억원 순발행되었으나 전월에 비해 축소
- CP의 경우 연말연시 상환분의 일부가 재발행된 데다가 MMF 급증에 따른 투신사의 매입수요가 늘어나 1월중 6조 5,000억원이나 증가
- 그러나 2월 하순이후 투신사 수신감소 등으로 CP 매입여력이 축소되고 신용카드사 등이 월말을 앞두고 CP를 대규모 상환하여 CP 순발행은 2월중 감소세로 전환
- 3월중에도 CP 순발행은 1,072억원 증가에 그쳤으나 기업의 저금리 자금조달원으로서의 매력은 여전한 것으로 보임.
-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약세를 보였던 작년보다 더욱 저조한 실적을 보였음.

<표 17>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추이

단위 : 기간 중 증감,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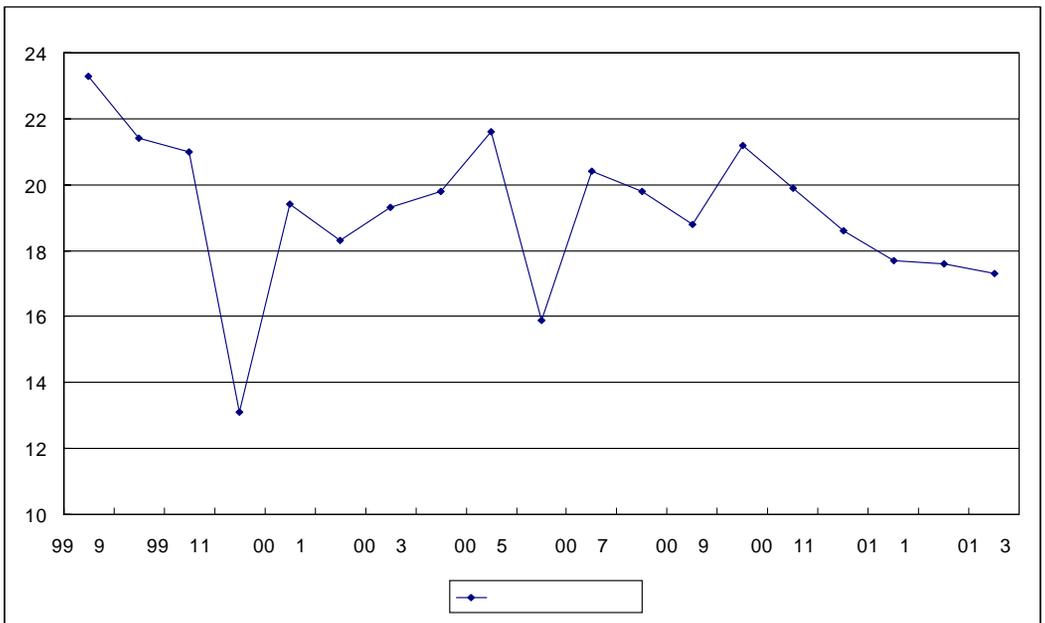
	2000년				2001년		
	1/4	2/4	3/4	4/4	1	2	3
회사채발행(순) ¹⁾	-41,315	-24,520	5,578	-45,584 (-87,365)	6,729 (831)	33,744 (13,130)	12,689 (4,242)
CP발행(순) ²⁾	89,207	-70,952	25,061	-48,839	64,982	-2,238	1,072
주식 발행 ³⁾	20,636	37,727	34,757	19,599	789	702	2,987

- 주 : 1) 법정관리, 화의 및 워크아웃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발행분
 ()내는 Primary CBO 편입분 및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제외한 금액
 2) 증권사, 종금사, 은행신탁의 CP 할인액 기준
 3)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기준, 금융기관 제외

자료 : 한국은행

- 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주는 지표인 당좌대출한도소진율이 금년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중에는 17.3%로 떨어졌음.

<그림 4>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추이



주 : 시중은행 기준, 12월은 25일기준
 자료 : 한국은행

- 금년 들어 전국어음부도율은 한국부동산신탁 부도발생의 영향으로 지난 12월 0.27%에서 1월 및 2월, 3월에는 각각 0.32%, 0.31%, 0.34%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는 서울이 상승폭이 큰 반면 지방은 대우자동차 지방공장의 부도금액 감소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
- 부도업체수는 금년 들어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1월중 532개로 전월대비 152개나 감소하였으며 2월 및 3월중에도 상당폭 감소한 497개 및 496개를 기록
- 신설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도법인수 대비 신설법인수 배율은 작년 11월 9.8배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2월에는 14.1배로 지속적 상승세
- 특히 3월 들어서는 지난해 3월(24.4배) 이후 최고치인 19.7배를 기록

<표 18> 전국 어음부도율(금액기준) 및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 개, 배

	1999	2000				2001		
	연간	9	10	11	12	1	2	3
어음부도율	0.33	0.30	0.22	0.63	0.27	0.32	0.31	0.34
서울	0.34	0.30	0.21	0.64	0.25	0.32	0.32	0.37
부도업체수	22,828	480	606	646	684	532	497	496
서울	2,559	181	221	266	250	203	202	175
신설법인/부도법인 ¹⁾	12.4	12.5	11.6	9.8	10.1	11.9	14.1	19.7

주 : 1) 8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시장 : 환율급등과 금리변동폭 확대로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 1~2월중 자본시장의 유동성 장세와 은행권의 연이은 예금금리 인하로 자본시장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시중자금이 안정적인 은행권에서 수익성을 찾아 제2금융권으로 이동
- 1월중 투신사 MMF로의 자금이동은 무려 9조 7,000억원을 상회하는 등 투신권으로 1~2월중 월평균 7조원의 자금이 이동한 반면 은행권으로 자금의 순유입은 1조원을 하회하는 수준
- 2월 하순 이후 대내외 경기불안과 환율급등으로 주식 및 채권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면서 시중자금 단기부동화 현상 심화
- 은행권의 1년이상 정기예금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수시입출금식예금은 3월중 1조 8,000억원 이상 증가
- 시장금리 변동폭 확대로 기대수익률이 불안정해지면서 투신사, 은행신탁 등 제2금융권 수신의 신장세도 둔화
- 3월중 투신사의 수신이 3조 8,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은행신탁도 5,500억원 증가에 불과하여 전월의 실적을 크게 하회

<표 19> 금융기관별 주요수신 동향

단위 : 억원, 증감액 기준

	2000년			2001년			
	10	11	12	1	2	3	3월말잔액
은행계정	65,457	80,907	61,811	1,996	15,928	36,835	4,177,462
실세요구불	20,224	-4,869	29,992	-26,590	3,233	-3,688	262,019
저축성예금	25,244	72,636	15,437	17,653	303	39,624	3,561,528
(정기예금)	33,853	30,498	-31,453	39,162	-17,500	7,637	1,987,426
(수시입출식)	-11,363	39,728	50,735	-36,373	2,589	22,136	1,005,408
<MMDA>	-3,552	29,240	10,953	-18,237	-9,817	16,656	347,491
CD+RP+표지어음	19,989	13,140	16,382	10,933	12,392	899	353,915
금전신탁	-31,461	-25,024	-49,026	-619	30,163	5,518	791,992
추가금전	1,384	2,188	1,999	8,203	22,719	6,597	84,663
단위금전	-5,009	-3,600	-4,322	-2,337	-2,858	1,354	21,952
신중적립	-8,941	-10,799	-14,831	-13,099	-4,788	-6,183	138,562
특정금전	1,166	3,299	-11,251	4,620	-3,260	-2,711	160,305
기타	-13,910	-19,422	-25,402	-10,993	-8,181	-7,525	318,788
투신사	-22,934	-6,969	-73,355	74,336	66,638	37,908	1,511,803
단기채권투자신탁	-2,973	3,488	-3,446	5,047	20,267	-1,280	190,228
장기채권투자신탁	2,586	8,135	22,911	3,503	16,506	20,581	435,594
MMF	-14,953	3,137	-52,441	97,307	34,481	33,385	433,116
주식투자신탁	2,175	4,408	12,306	886	4,309	-725	45,085
혼합투자신탁	-9,769	-26,137	-52,685	-32,407	-8,925	-14,052	407,781
종금사	-4,280	-3,358	-28,552	15,577	-6,862	-14,526	98,833
채신예금	3,200	3,818	15,275	8,363	5,557	19,444	271,271
증권사고객예탁금	-5,080	504	-10,218	26,594	-5,564	-5,161	76,445
주식형뮤추얼펀드	-1,558	-3,097	-8,553	-6,846	308	4,346	20,034

자료 : 한국은행

- 4월 들어 금융시장 자금흐름은 외환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 시중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투신사 및 은행신탁이 다시 감소세로 반전되는 등 간접금융상품으로의 자금유입세가 1/4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는 양상

- 4월 들어 13일까지 투신사의 MMF에서의 자금이탈은 4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장실세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일부 펀드의 원금손실 우려감으로 가속화되는 양상
- 반면 은행저축성 예금은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인하 여파가 다소 진정되면서 다시 증가세 지속되어 3월중 3조 9,600억원 증가에 이어 4월 들어 13일까지 4조 6,500억원이나 증가
- 금년 들어 1~2월중 채권시장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더불어 풍부한 시장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채권수요 우위의 양호한 수급상태가 이어짐에 따라 지표금리가 급락
- 특히 시중자금이 무위험 채권인 국고채와 통안채로 편중되는 소위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Quality)현상이 회사채시장에서도 나타나 우량회사채와 비우량회사채 간의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
- 2월중순 이후 채권시장은 경기 조기회복 논란 등으로 향후 금리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국고채유통수익률을 비롯한 주요 지표금리에 대한 변동폭이 확대되는 불안한 양상
- 최근에는 국제외환시장에서 엔화약세로 인한 원화의 동반약세현상이 향후 물가상승 우려감으로 이어지면서 채권시장 불안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
- 3월 중순이후 채권시장은 원화약세에 대한 외환시장 불안이 극도에 달하면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국고채유통수익률 등 주요 장기금리지표가 환율추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승

- 4월 들어서 원·달러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정부는 6일 외환시장 직접개입 의사를 표명
- 이후 원·달러환율의 상승폭이 줄어들고 엔화약세현상도 진정됨에 따라 위축된 채권투자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 주식시장은 연초 미연준의 금리인하 등 대외여건 호전과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큰 폭의 반등세를 시현
- 1월 하순 들어 주식시장은 그 동안의 단기급등에 대한 경계감과 경기둔화 전망으로 약세로 전환
- 2월중 주가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등 정부의 강력한 주식시장 활성화대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지수의 급락과 전월 급등에 따른 경계매물 출회로 하락세 지속
- 3월 들어서도 미국과 일본의 주식시장 하락 여파가 국내시장에 그대로 전이되면서 추가하락에 대한 불안감마저 상존

	2000년			2001년		
	6달	9달	12달	1달	2달	3달
종합주가지수	821.22	613.22	504.62	617.91	578.10	523.22
코스닥지수	151.9	90.17	52.58	84.36	76.76	68.43
다우존스지수	10,448	10,651	10,787	10,887	10,495	9,879
나스닥지수	3,966	3,673	2,471	2,773	2,152	1,840

자료 : 한국은행

- 외국인 투자자들은 1월중 3조원에 가까운 순매수 규모를 보였으나 1월 하순이후 주식시장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면서 매수 규모를 대폭 축소
-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주가 하락 및 원·달러 환율의 불안한 양상이 이어지면서 3월 이후 매우 소극적인 투자자세를 유지

<표 21>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

단위 : 기간중, 억원

	2000년			2001년		
	10	11	12	1	2	3
주식순매수	-3,277	6,730	4,903	29,635	3,589	833
거래소	-3,769	6,251	4,522	27,337	3,690	411
코스닥	492	478	381	2,298	-101	422

- 1/4분기중 기업공개는 한 건도 없었으나 유상증자 규모는 1조원을 상회하는 등 다소 공급차원의 부담요인으로 작용
- 2000년 상반기까지 10조원대를 상회하던 주식시장의 고객예탁금이 1~2월중에는 주식시장 호조 기대감으로 8조원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3월이후 다시 7조원대로 하락

- 신용융자잔고는 금년들어 다소 상승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어서 주식시장 약세를 반영

<표 22> 주식시장 수급양상 추이

단위 : 억원

	1999	2000				2001		
		1/4	2/4	3/4	4/4	1	2	3
유상증자	173,858	11,294	16,584	8,396	5,665	7,764	1,943	1,163
기업공개	153,576	-	-	1,250	10,019	-	-	-
계	327,434	11,294	16,584	9,646	15,684	7,764	1,943	1,163
고객예탁금잔액	69,919	108,135	100,765	75,064	60,576	87,170	81,606	76,444
신용융자잔고	6,828	3,865	3,377	2,266	1,352	1,441	1,503	1,511

주 : 고객예탁금잔액과 신용융자잔고는 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국증권전산

장단기 지표금리 : 사상최저수준으로 하락이후 다시 큰 폭으로 등락

-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경기둔화 전망 및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및 한은의 콜금리 인하 등으로 2월 12일 사상 최저수준인 5% 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급반등
- 2월 중순 이후 금리 낙폭 과대에 대한 시장의 인식과 더불어 원달러환율의 급등에 따르는 물가 우려감과 금리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금리가 급등락하는 불안한 양상
- 4월 들어 국고채수익률은 4일 6.70%까지 급등한 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다시 6%대 중반에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음

- 지난해 하반기 거래부진으로 경직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던 CD 및 CP 유통수익률도 금년 들어 1~2월중 투신사 및 은행신탁 등의 단기성 수신 호조에 따른 매입수요 증가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음
- 원·달러환율의 급등으로 물가상승 우려감이 증폭되었으나 CP 유통수익률 등 단기 시장금리는 투신사 등의 단기수신자금 운용을 위한 매입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3월 들어서도 완만한 하향안정세를 시현

<표 23>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 연, %

	99년	2000년					2001년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콜(익일)(A)	4.71	5.11	5.02	5.37	5.31	6.01	5.27	5.05	4.94
CP(91일)	7.47	7.24	7.24	7.24	7.26	7.26	6.66	6.20	6.06
국고채(3년)(B)	9.22	7.79	8.07	7.64	7.16	6.70	5.68	5.43	6.31
회사채(3년)(C)	9.85	8.98	9.04	8.59	8.35	8.13	7.38	6.77	7.69
B - A(%p)	4.51	2.68	3.05	2.27	1.85	0.69	0.41	0.38	1.37
C - A(%p)	5.14	3.87	4.02	3.22	3.04	2.12	2.11	1.72	2.75

주 : 월말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일일금융시장 동향

- 1/4분기중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의 변동을 보인 가운데 회사채의 경우 우량기준물(AA-)과 투자적격 최하위 등급물(BBB-)간의 수익률격차는 금년 1~2월중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3월들어 다소 축소
- CP시장에서 우량기준물(A1)과 비우량기준물(A2, A3, B)과의 차이는 모든 등급에

걸쳐 다소 축소되었음.

- 금융시장불안을 반영하여 중·장기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상존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금년 들어 회사채 등급별 금리차가 전년 말에 비해 전반적으로 확대된 것은 신용도에 따른 기업자금시장의 차별화 현상을 반영
- 전체 채권시장 거래대금중 회사채 거래대금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을 정도로 회사채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회사채 등급별 금리격차확대는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회사채 시장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

<표 24> 신용등급별 회사채 및 CP 금리격차 추이

단위 : %p

	2000년			2001년		
	10	11	12	1	2	3
회사채 ¹⁾						
BBB+ ²⁾	1.42	1.44	1.43	1.43	1.43	1.38
BBB- ³⁾	3.17	3.52	3.69	4.18	5.03	4.76
CP ⁴⁾						
A2	0.18	0.18	0.18	0.15	0.15	0.13
A3	0.82	0.85	0.88	0.84	0.84	0.80
B	4.28	4.32	4.35	4.32	4.32	4.25

주 : 1) 3년물기준
 2), 3) 우량기준물(AA-)과의 금리격차
 4) 우량기준물(A1)과의 금리격차

자료 : 한국은행

환율 및 외채 현황

-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증시조정으로 미국과 일본의 경제상황이 불투명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빠른 상승세를 지속해 왔음.
- 금년 1~2월중 외국인 주식투자 순유입 규모가 늘어나면서 외환수급상황이 안정세를 보여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안정세
- 그러나 3월 들어 국내외환시장 수급상황이 크게 악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지수의 급락과 엔·달러환율의 급등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순이후 급상승
- 3월말 일본의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투자자금 본국송금의 영향으로 엔·달러환율이 122엔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원·달러환율도 1,300원대 초반까지 하락
- 이후 일본 정부의 엔화약세 용인 발언과 일본의 단칸지수 악화발표로 엔·달러환율이 126엔대까지 상승하면서 동남아 국가의 통화가치도 동반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임.
- 더욱이 4월초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실망감이 대두되면서 4일에는 원·달러환율이 1998년 10월 이후 최고치인 1,365원대로 상승
- 그러나 지나친 엔화약세로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미국 제조업체의 지나친 달러화 강세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일본 정책당국자들이 엔화약세에 대한 강력한 우려감 표명으로 엔·달러환율은 다시 123엔대로 하락

- 4월 초반 이후 엔·달러환율의 안정과 함께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국내주식 순매수 전환 및 정부의 국책은행을 통한 외환시장 직접개입으로 12일에는 1,316원까지 급락 이후 1,320원대에서 등락 거듭

<표 25> 원화 및 엔화 환율 추이

	99말	00말	01.1말	2말	3말	4.2	4.3	4.17
원/달러 ¹⁾	1,138.00 (+5.8)	1,264.50 (-10.0)	1,259.00 (+0.4)	1,250.80 (+1.1)	1,327.50 (-4.7)	1,348.80 (-6.3)	1,343.70 (-5.9)	1,324.10 (-4.7)
엔/달러 ²⁾	102.23 (+11.0)	114.41 (-10.6)	116.52 (-1.8)	117.35 (-2.5)	126.18 (-7.5)	126.70 (-9.7)	125.59 (-8.9)	124.40 (-8.7)
원/100엔 ³⁾	1,111.17 (-4.6)	1,101.78 (+0.9)	1,081.62 (+1.9)	1,072.73 (+2.7)	1,057.07 (+4.2)	1,068.01 (+3.2)	1,067.86 (+3.2)	1,072.06 (+2.6)

주 : 1) 종가기준 2) 뉴욕시장 종가 3) 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4) ()내는 전년말대비 절상(+), 절하(-)율(%)

- 금년 2월말 현재 우리 나라 총외채 규모는 1,317억달러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단기외채 중·장기 전환분 조기 상환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 차입금 감소 등에 주로 기인
- 단기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및 유동외채 비율도 2월 말 현재 43.9%, 58.5%로서 매우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

<표 26> 외채관리지표 추이

단위 : %

	'97년말	'98년말	'99년말	'00년말	'01.1말	2월말
단기외채/외환보유액*	714.6	63.3	53.0	45.9	44.3	43.9
유동외채/외환보유액**	927.0	119.0	75.7	61.4	58.5	58.5

주 : * 안정수준(60%미만), 경계수준(60~100%), 위험수준(100% 초과)

** 안정수준(100%미만), 경계수준(100~200%), 위험수준(200% 초과)

자료 : 재정경제부

- 총대외채권은 2001년 2월말 현재 1,648억달러로 순채권 규모는 331억불로서 1999년 9월 이후 순채권 기조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27> 총대외부담 및 채권 현황

단위 : 억불

		'97말	'98말	'99말	'00말	'01.1말(A)	2말(B)	B-A
총대외지불부담		1,592	1,487	1,371	1,363	1,334	1,317	-17
부 문 별	공공부문	223	365	295	279	269	257	-11
	국내금융기관	703	571	473	380	369	364	-6
	외은지점	196	139	137	132	125	128	3
	민간부문	471	412	466	572	571	568	-4
장 단 기 별	장기외채	957	1,180	978	921	911	898	-13
	단기외채	636	307	392	442	423	418	-5
	-국내금융기관	272	113	127	137	130	126	-4
	-외은지점	152	76	98	101	93	96	2
	-민간부문	212	118	167	204	200	197	-3
총대외채권		1,052	1,285	1,454	1,669	1,655	1,648	-7
부 문 별	공공부문	215	529	749	970	964	962	-1
	국내금융기관	686	596	536	498	488	472	-17
	외은지점	35	43	37	60	62	71	8
	민간부문	117	118	132	141	141	143	2
순 채 권		-541	-202	83	306	321	331	10

자료 : 재정경제부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세계경제 : 2%대 성장후 내년 회복 전망

- 지난 해 세계경제는 4%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 금년에는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전망
- 세계은행 및 유엔은 4월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을 WEFA 전망치보다 1%p 이상 낮은 2.2~2.4%로 전망

<표 28>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

	2000		2001		2002	
	WEFA	세계은행	WEFA	세계은행	WEFA	세계은행
전세계	4.3	4.0	3.2	2.2	3.5	3.3
선진국	3.9	3.6	2.7	1.6	3.0	2.8
(미 국)	5.1	5.0	2.8	1.2	3.4	3.3
(일 본)	2.0	1.7	1.5	0.6	2.4	1.8
(유 로)	3.4	3.4	3.0	2.5	2.8	3.1
세계 교역량	11.8	13.0	8.0	5.5	7.1	7.3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001. first quarter
 세계은행,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1, 2001. 4

- 미국경제의 둔화추세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세계경제는 연말부터 회복하여 내년에는 3%대의 성장이 가능할 전망
- 세계경제 조기회복의 관건은 미국, EU 등이 금리인하, 조세감면 등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

미국경제 : 1/4분기 경기둔화

- 미국경제는 지난 해 연간으로 5.0% 성장하였으나 3/4분기 2.2%, 4/4분기 1.0%로 하반기 이후 경기상승 속도가 급속하게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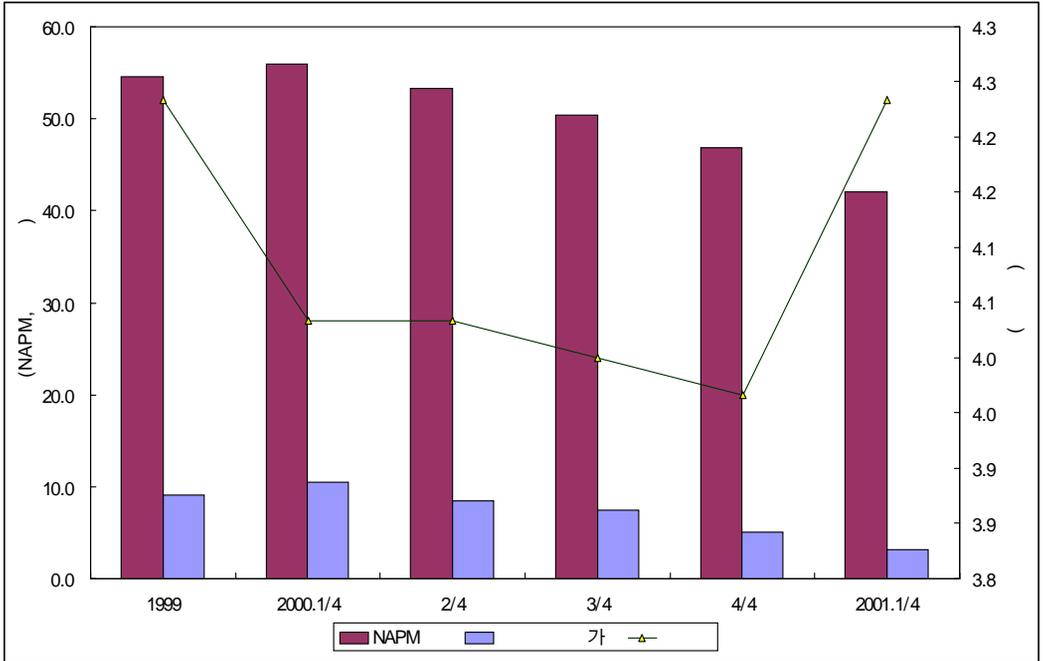
<표 29>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1999	계절조정, 전기대비(%)				
		2000				
		연간	1/4	2/4	3/4	4/4
국내총생산	4.2	5.0	4.8	5.6	2.2	1.0
민간소비	5.3	5.3	7.6	3.1	4.5	2.8
고정투자	9.2	9.3	16.4	11.2	3.1	▽0.9
소비자물가	2.2	3.4	1.0	1.1	0.8	0.5
수출(십억달러)	956.2	1,068.7	255.9	265.9	275.4	271.5
수입(십억달러)	1,221.2	1,437.6	341.1	354.7	371.0	370.7

자료 : 상무성, 노동성

- 1/4분기중 미국경제는 제조업 부진 및 소비 둔화가 지속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경기지표가 둔화

<그림 5> 미국경제의 최근 추이



일본경제 : 내수침체에 수출부진 겹쳐

- 일본경제는 지난 해 민간소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의 확대 및 수출증가에 힘입어 1.7%의 성장률을 기록

<표 30>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계절조정, 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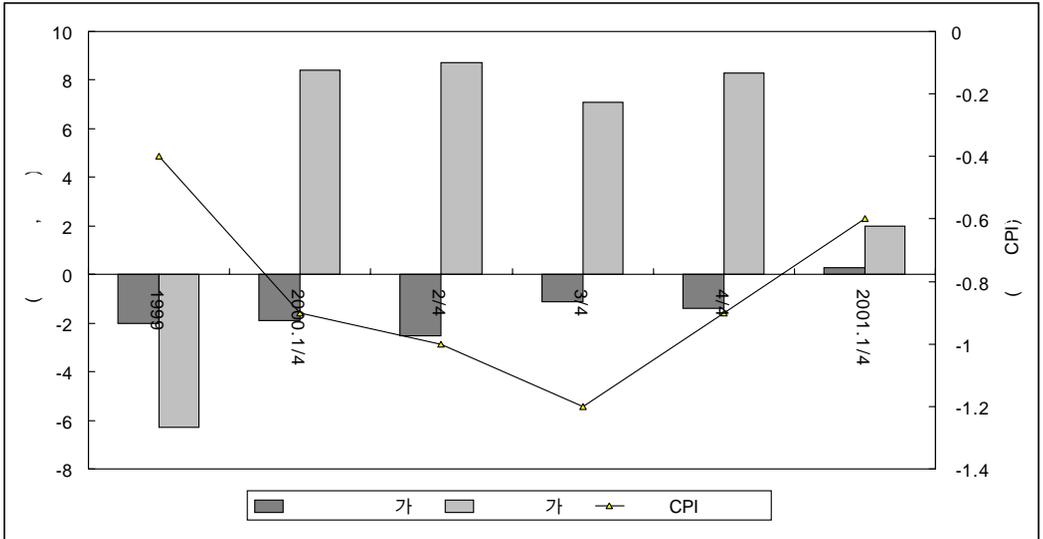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국내총생산	0.8	1.7	2.4	0.2	▽0.6	0.8
민간소비	1.2	0.5	2.0	0.1	0.0	▽0.6
고정투자	▽3.2	3.9	2.4	-3.1	1.3	6.3
소비자물가	▽0.3	▽0.7	▽0.1	▽0.3	▽0.1	▽0.1
수출(천억엔)	457.9	495.3	118.6	122.2	126.5	128.0
수입(천억엔)	317.8	369.6	86.5	88.7	92.7	101.8

자료 : 경제기획청, 일본은행

- 1/4분기중 일본경제는 물가하락과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율 또한 급격하게 감소

<그림 6> 일본경제의 최근 추이

(전년동기 대비, %)



유로경제 : 인플레이션하의 경기 둔화 조짐

- 유로경제는 지난 해 수출의 지속적 확대에 힘입어 3.4%의 성장률을 기록

<표 31> EU의 주요 경제지표

계절조정, 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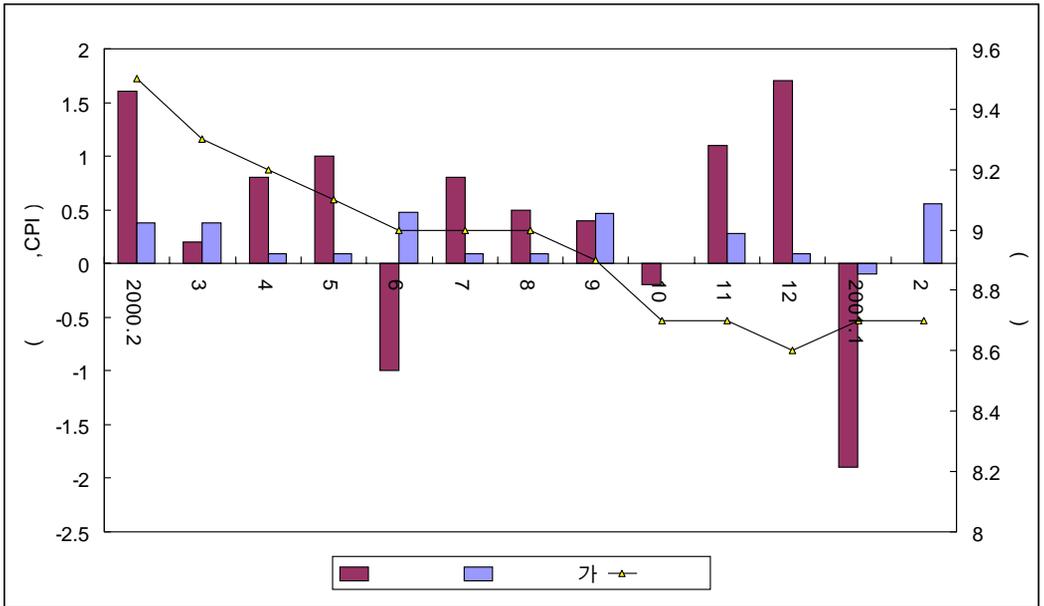
	1999	2000				
		연간	1/4	2/4	3/4	4/4
국내총생산	2.5	3.4	0.9	0.8	0.6	0.7
민간소비	2.8	2.6	0.7	0.8	0.2	0.3
고정투자	5.3	4.6	1.8	0.6	1.1	0.4
소비자물가	1.1	2.4	0.8	0.7	0.7	0.6
수출(십억유로)	831.8	1,003.6	229.9	247.8	249.0	277.0
수입(십억유로)	780.5	991.0	231.3	243.2	244.4	272.1

자료 : Eurostat, ECB

- 1/4분기중 유로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생산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미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확산

<그림 7> 유로경제의 최근 추이

(전년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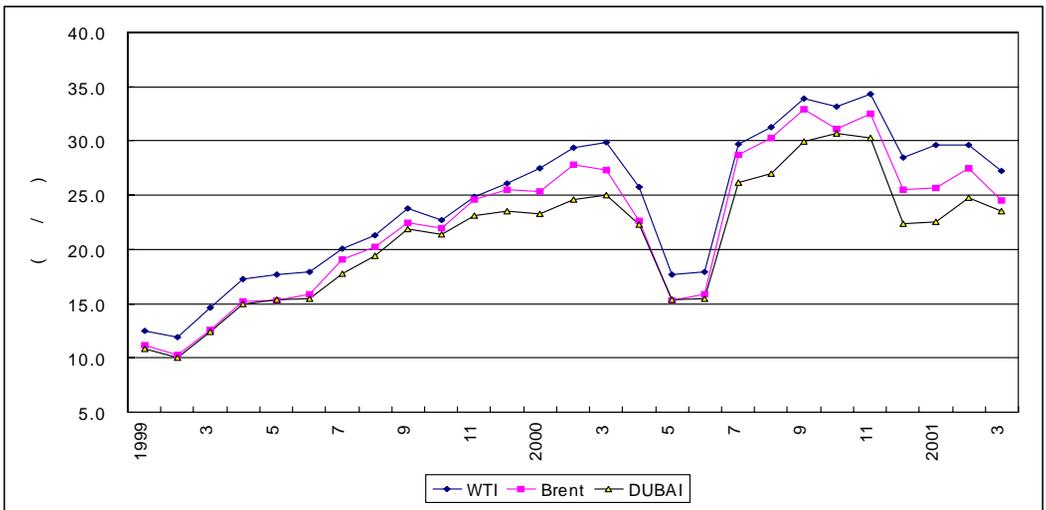


2. 원자재 가격

국제유가 : 전기대비 3.6 달러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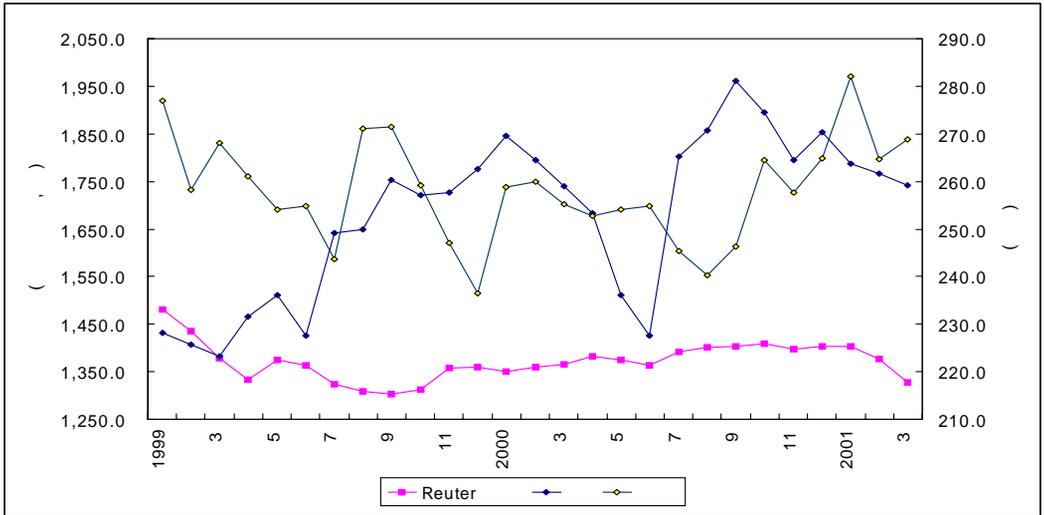
-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경기 둔화와 계절적 비수기의 도래로 하락세를 지속
- 1/4분기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전기대비 배럴당 3.6달러 하락한 24달러 수준에서 하향 안정

<그림 8> 국제유가 추이(월평균)



- 1/4분기 로이터 상품가격지수는 소맥 등 곡물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기대비 2.5% 하락

<그림 9> 기타 원자재 가격 추이[지수, 동(달러/톤), 소맥(센트/부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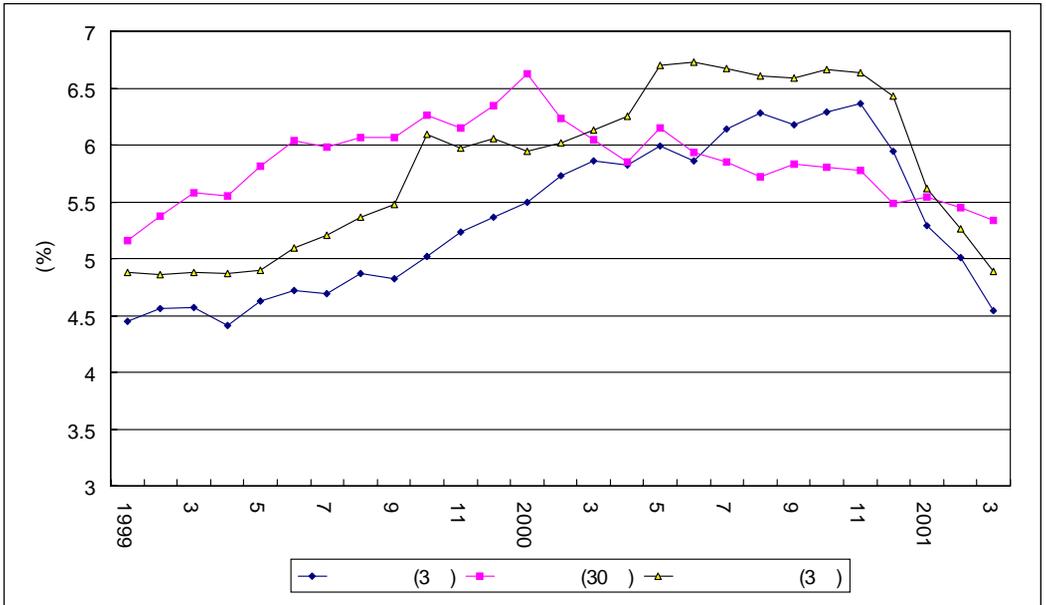


3. 국제금리 · 환율

국제금리 하락세, 달러화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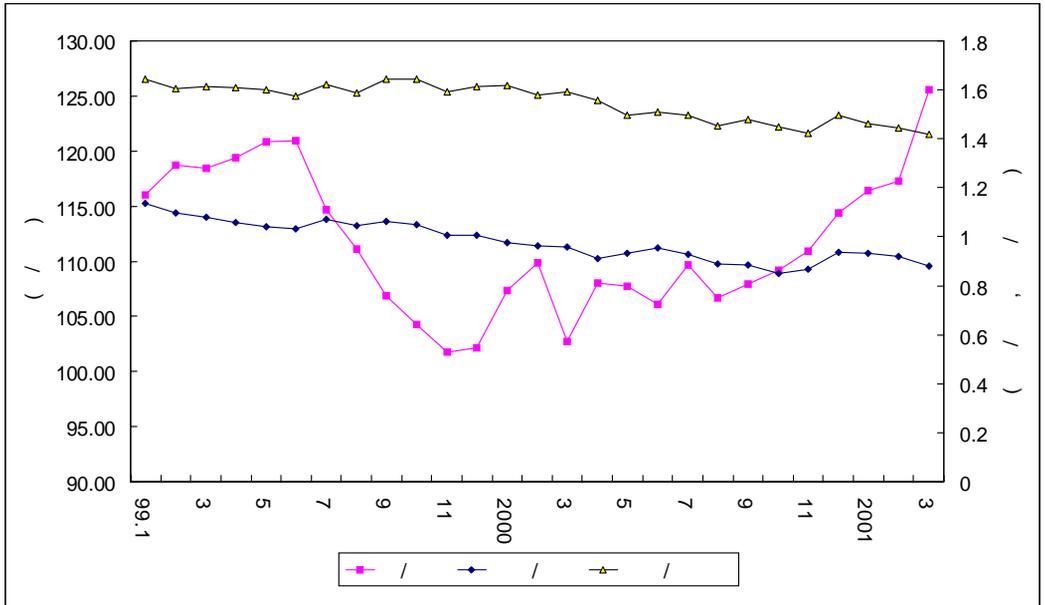
- 1/4분기중 국제금리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 정책금리 인하로 장·단기 모두 큰 폭으로 하락
- 단기금리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미 채무증권의 경우 전기대비 평균 1.3%p 하락

<그림 10> 국제 금리 추이(월평균)



- 1/4분기중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EU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증폭됨에 따라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하여 강세를 시현
- 엔/달러 환율은 전기말 대비 9.8% 상승. 유로/달러 및 파운드/달러도 5~6% 하락

<그림 11> 주요 통화의 달러 환율 추이 (기말 기준)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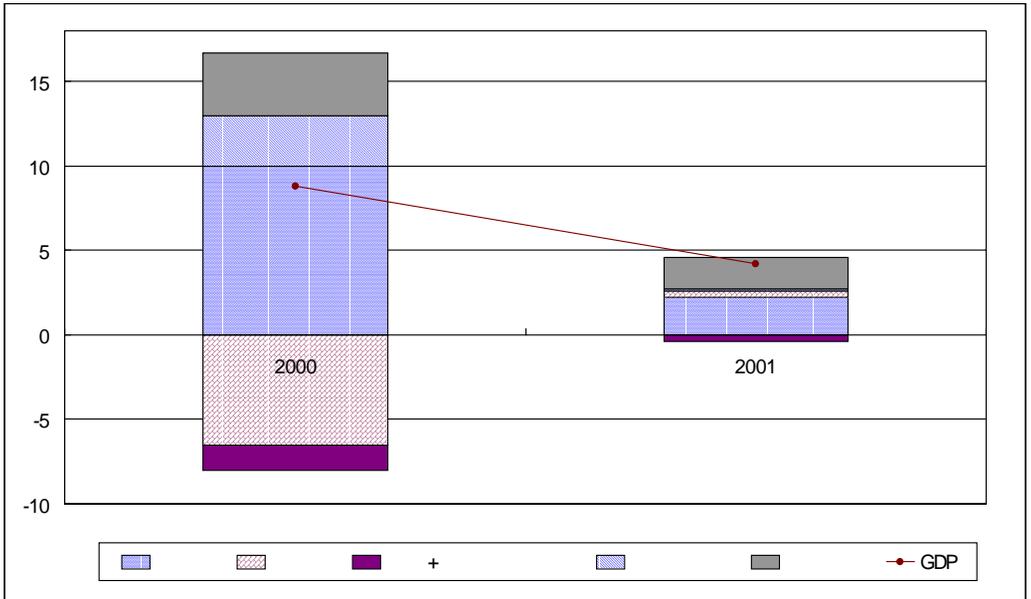
2001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한국경제 2/4분기부터 경기침체기 탈출

- 소비, 순수출, 투자가 비슷하게 기여하였던 2000년에 비해 올해에는 순수출과 소비의 증가가 국민총생산의 성장에 중요하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작년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기여도가 GDP 성장의 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에는 순수출이 기여하는 비중이 60%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상대적으로 내수의 역할이 작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음(그림 12 참조). 이는 작년 3/4 분기 이후 빠른 속도로 진행된 내수의 위축에 따른 결과임. 아울러 대외부문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대외여건의 변화가 이번 예측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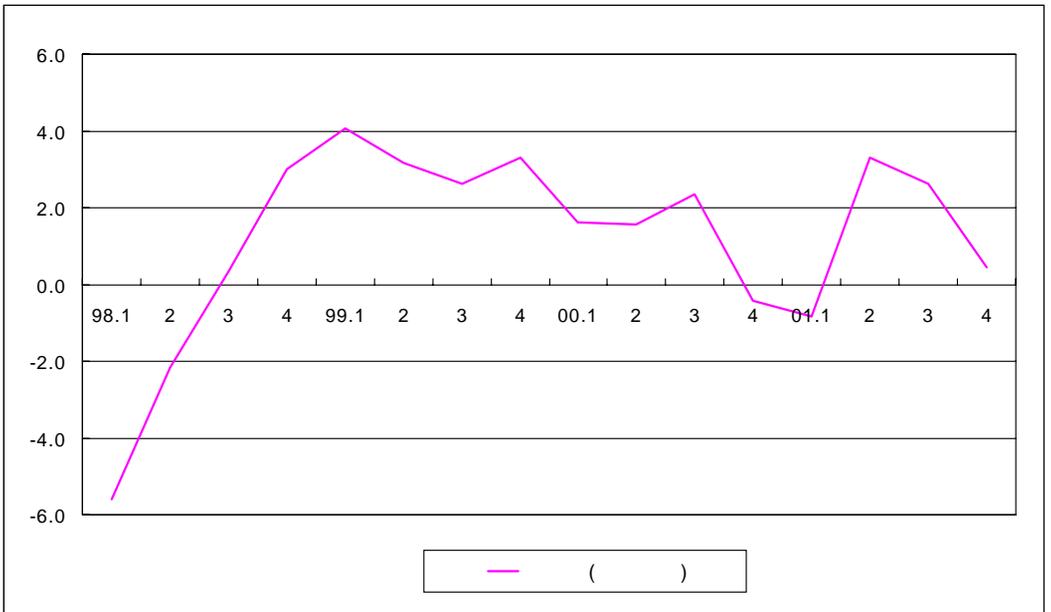
<그림 12> 최종수요부문별 성장 기여도



- 반기별 성장추세를 보면 상반기에 성장률 증가세의 둔화가 가장 두드러질 것이며 하반기에 들어서 점차 성장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001년 상, 하반기 GDP 성장률은 각각 3.4% 및 5.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됨. 상반기에는 내수의 모든 부분이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림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계절조정된 GDP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 추세를 보면 지난해 4/4 분기에 이어 금년 1/4 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준으로 하는 미국의 경기순환 분류방식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지난 두 분기동안 경기침체(recession)를 겪었음. 하지만 2/4 분기부터 소비와 수출의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이다.
- 지난 2년간 매년 약 30% 가까이 증가하여 총생산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던 설비투자가 올해에는 증가세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지난 2년간 계속 위축되었던 건

설투자자는 2001년에도 별다른 회복기미가 없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투자의 위축세는 그 동안의 큰 폭 증가에 따른 조정국면과 불투명한 경기전망에 기인

<그림 13> GDP 성장률 추이



- 올해 들어 미국과 일본 경기의 둔화와 불투명해진 전망 때문에 우리의 수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 올 해 성장률 전망에 수출의 향방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임.
- 작년 우리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21%와 36% 증가하였음. 올해 수출이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인데 반해 수입은 작년보다 줄 것으로 보임. 1/4분기 실적을 보면 수출은 증가한 반면 수입은 감소하였음(수출 3.1%, 수입 -2.0%).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이 되면 경상수지 흑자폭은 작년 수준을 상회할 전망

- 아울러 우리의 제일 큰 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가 연초 이후 지속되어온 부양정책에 힘입어 연말 이전에 회복할 전망이다. 일본경제가 계속 침체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유럽의 경기는 양호한 모습임. 따라서 우리 수출에 대한 수요기반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은 낮음.
- 대외여건이 유리하게 변화할 경우 순수출의 추가 증대가능성이 있는 반면 추가적인 악화가 있을 시에는 수출의 감소도 가능. 따라서 대외여건의 향방이 이번 예측의 주요 위험 요소임.
- 본원의 지난 4/4분기 전망에서 가장 큰 downside risk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내수의 추가 위축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내수 중 투자는 계속 부진할 것으로 보이나 소비회복이 지난번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보임.
- 이번 전망은 암묵적으로 금융 및 기타부문 구조조정이 순조로이 진행되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 하지만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효과도 점차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반면에 구조조정이 부진해진다면 부정적인 효과는 단기에 가시화될 수 있고 경제전망이 나빠질 수 있음. 따라서 구조조정노력의 지속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임.

2.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연간 4.3% 상승 전망

-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가격, 공공요금, 교육비 등의 일시적인 상승요인 발생과 1/4분기 말부터 가시화된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높아졌음. 1/4분기에 전년동기에 비해 4.2% 상승한 소비자물가는 연간 4.3% 정도 상승할 전망이다.

- 이번 물가 상승전망은 지난해말 전망치(3.0%)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이후의 예상외의 물가상승 요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함.
- 연초이후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약 5% 하락하였는데 이는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겨 중대한 물가상승요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총수요가 지속적으로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없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지금까지의 물가 상승률의 증가추세는 물가상승률목표제도(Inflation targeting)하에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물가상승의 원인에 관계없이 통화정책 수단을 경기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임.

3. 대외거래부문

경상수지, 작년보다 많은 130억 달러

- 2001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00년의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0년 21%에 달했던 수출증가세가 2001년에는 0.7%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2000년 36% 넘었던 수입증가세도 크게 둔화되어 수입총액이 작년보다 같거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2001년 상품무역수지는 2000년 보다 높은 190억불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연초 이후 원화의 달러대비 가치하락은 엔화의 가치하락과 동조하여 나타난 현상이었고 기타 동남아 통화도 우리와 비슷한 약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해외시장에서 우리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는 적음. 당분간 환율변동 보다는 미국

과 일본의 경기침체가 우리수출전망에 최대변수가 될 것임.

<표 32> 2001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억달러

	1999	2000	2001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 총생산	10.9	8.8	3.0	3.8	4.8	5.2	4.2
(제조업)	21.0	15.4	3.5	4.8	6.4	7.7	5.7
총소비	9.5	6.1	1.8	2.8	3.6	4.8	3.3
민간소비	11.1	7.0	2.2	3.6	4.2	5.7	4.0
고정자본형성	4.6	11.7	-4.7	-1.2	0.9	5.7	0.3
설비투자	36.7	34.0	-5.9	-0.6	2.8	9.5	1.2
건설투자	-10.3	-4.1	-3.3	-1.7	-1.2	2.6	-0.7
총수출	15.9	21.6	2.2	4.5	5.4	5.1	4.3
총수입	28.8	19.5	-5.2	-1.1	0.7	1.2	-1.1
생산자 물가	-2.1	2.0	2.5	3.6	3.4	3.2	3.2
소비자 물가	0.8	2.3	4.2	5.0	4.0	3.9	4.3
경상수지	244.8	110.4	22.7	27.3	37.3	42.4	129.7
상품수지	283.7	166	34.5	46.6	50.9	57.7	189.7
수출	1,451.6	1,757.8	404.1	438.6	454.3	473.1	1,770.1
증가율(%)	9.9	21.1	-2.5	-0.5	0.0	5.5	0.7
수입	1,167.9	1,591.8	369.6	392	403.4	415.4	1,580.4
증가율(%)	29.1	36.3	-5.3	-0.7	0.9	2.1	-0.7
서비스, 소득및이전수지	-38.9	-55.6	-11.8	-19.3	-13.6	-15.3	-60
원화 환율(기말, Won/\$)	1,145.4	1,259.7	1,327.5	1,350	1,300	1,250	1,250
엔화 환율(기말, Yen/\$)	102.1	114.4	126.2	130	127	125	125
M3증가율(평잔, %)	11.3	5.7	7.0	7.1	7.2	6.6	7.0
회사채수익률(%)	8.9	9.4	7.2	7.8	7.9	8.1	7.8

4. 금융부문

통화정책 : 물가상승압력, 탄력적 통화운용기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각종 통화지표가 2000년 3/4분기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들어 이러한 하락세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경기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통화당국의 금융시장 안정에 바탕을 둔 신축적 통화관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
- 그러나 최근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2월중 산업생산이 전월에 이어 소폭 증가하는 등 경기둔화속도가 완만해진데다가 소비와 투자심리가 소폭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물가안정에 보다 무게를 둔 통화정책이 예상됨.
- 특히 소비자물가가 금년 1/4분기 들어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4%를 상회하고 있고 환율상승에 따르는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향후 물가의 움직임이 탄력적 통화운용기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 지표금리 자체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등에 의한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기업자금사정 : 2/4분기 이후 어려움 가중 예상

- 은행권 대출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의 자금증개기능이 크게 위축되어 기업의 자금사정은 쉽지 않을 전망
- 2/4분기중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가 12조원으로 연중 최저수준이며 4/4분기중 신용보

강이 필요한 회사채 10.5조원을 비롯하여 23.5조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기업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더욱이 금융시장 불안감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기업구조조정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에는 경기둔화가 가속화되며 기업자금난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표 33>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01년				
	1/4	2/4	3/4	4/4	합계
총만기도래(사모포함)	15.5	12.0	14.1	23.8	65.4
중도상환, 워크아웃·화의, 부도 등	5.1	3.2	4.7	4.6	17.6
A등급 이상 등	4.7	4.5	4.9	8.7	22.8
신용보장이 필요한 회사채	5.7	4.3	4.5	10.5	25.0

자료 : 금융감독원

- 정부는 작년에 이어 금년 들어서도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였으나 기업자금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는 실패하였으며 당분간 기업자금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 문제 등에 있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하반기중 기업자금사정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지난 1~2월중 금리하향 안정화 추세로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여 자금경색이 일부 완화되는 등 자금시장 안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던 '안전자산 탈피, 수익성 추

구' 현상이 사라지고 2/4분기 들어 다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지난 1~2월에 있었던 자금의 선순환 조짐이 기업부실 해소나 부채규모 감소 등 기업 신용위험의 근본적 감소에 따른 것이기 보다 금리하락으로 인한 일시적 효과였음을 의미함.
- 따라서 향후 돌발적인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잠재되어 있던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재현될 소지가 많음.
- 현재와 같은 낮은 금리수준의 유지가 경제 및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업구조조정 여부가 관건
- 금융시장 내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위험에 따르는 가산금리 차등폭을 확대하여 가격기능에 의한 기업자금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회사채 수급이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고 기업의 상시퇴출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을 제고시키는 등 시장 인프라 개선노력이 필요함.

장 · 단기 금리 : 점진적 상승 전망

- 지난 4월 초순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한 환율안정 의지를 표명한 이후 외환시장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면서 채권시장의 투자심리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일본경제의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엔·달러 환율의 향방이 여전히 불투명하고 2/4분기중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어 장기금리의 점진적 상승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국내외 경제상황과 엔화환율 변동 등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 채권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현상도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
- 주가 및 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간접투자상품으로의 자금유입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 투자기회를 관망하는 단기부동자금이 증가하고 있어 기관들의 채권매수세가 당분간 살아나기는 어려울 전망
-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통화당국의 탄력적인 통화운용기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고채나 예보채 등 국채발행물량을 신중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장기금리는 국내외 외환시장의 동향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금리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하락시에는 이익매물 출회가 예상되는 등 하방경직성이 존재
- 따라서 장기금리는 당분간 대내외적인 불안요인과 풍부한 시중유동성 요인이 겹치면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전망
- 다만 2/4분기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부담이 가장 적은데다가 미국의 추가금리인하 가능성도 있어 2/4분기중 장기금리의 상승세는 제한적일 전망

-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불안정성이 당분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콜시장에서의 단기자금 공급우위는 지속될 전망
- 최근 물가불안이 가중되면서 2/4분기중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단기금리는 금융기관들의 풍부한 단기유동성을 바탕으로 2/4분기중 5.0% 전후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전망

<표 34> 2001년중 장·단기 금리 전망

단위 : %

	2000					2001(E)				
	1/4	2/4	3/4	4/4	연간	1/4(E)	2/4(E)	3/4(E)	4/4(E)	연간
콜	4.96	5.08	5.07	5.30	5.09	5.13	5.00	5.10	5.20	5.11
회사채	10.1	9.9	9.0	8.4	9.4	7.2	7.8	7.9	8.1	7.8

주 : 기간 평균기준임.

환율

- 4월중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정책으로 원·달러환율이 1,300원대 초반에서 안정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주가가 상승하고 엔·달러환율이 123~124엔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되는 등 외부여건 호전에 기인하는바 큼.
- 일본과의 수출경쟁력을 감안하더라도 과거 원·엔환율이 1,040~1,080원대에서 형성되었고 현재 1,070원대인 점을 감안할 때 엔·달러환율이 현 상태에서 유지된다면 1,300원대 초반까지 원·달러환율의 추가 하락도 가능할 전망이다.

- 4월 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은 936,4억달러로서 금년중 총 29.7억달러에 달하는 IMF 차입금을 상환함에 따라 3월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외적 충격에 대처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임.
- 대외신인도 면에 있어서도 외평채(2008년 만기) 금리가 190bp 대에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

<표 35>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달러

	1997	1998	1999	2000				2001			
	12월	12월	12월	1/4	2/4	3/4	4/4	1월	2월	3월	4.15
외환보유고	204.1	520.4	740.5	836.5	906.7	925.3	940.8	954.2	953.3	944.4	936.4

자료 : 한국은행

- 그러나 향후 미국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임.
- 또한 일본의 경제침체나 정정불안 등 엔화약세를 초래한 요인들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 등 구조개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엔화약세기조는 지속될 전망.
- 국내상황도 수출감소, 현대건설 문제 등 구조조정에 따르는 불안심리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한 원·달러환율의 하락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큼.
-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원·달러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하나 대외경제 여

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고 국내 기초경제여건의 악화 및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화약세는 엔화약세와 더불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대규모 외환보유고, 무역수지 흑자추세 유지, 외국인 직·간접 투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외환시장 수급상황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그러나 원·달러환율이 국내상황보다는 대외요인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어 만약 대외요인이 더욱 악화될 경우 2/4분기중 원·달러환율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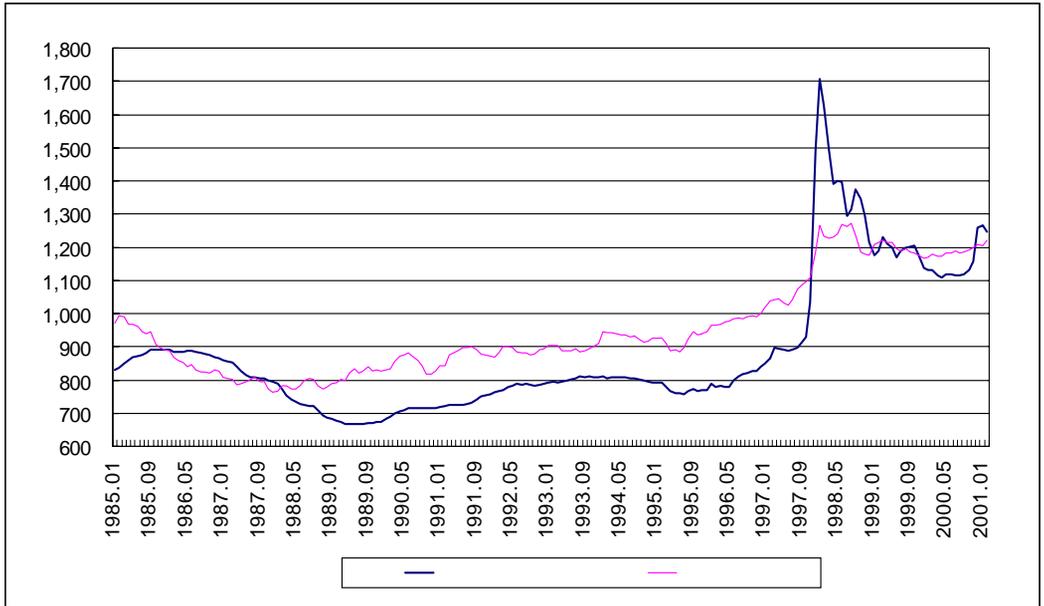
<표 36> 2000년중 환율 전망

	1999	2000				2001(E)			
		1/4	2/4	3/4	4/4	1/4	2/4(E)	3/4(E)	4/4(E)
원·달러환율	1,138.0	1,108.3	1,114.8	1,115.0	1,259.7	1,327.5	1,350.0	1,300.0	1,250.0
엔·달러환율	102.2	102.7	106.0	108.2	114.4	126.2	130.0	127.0	125.0

주 : 기간말기준

-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정모형에 의한 실질실효환율 차원에서 원화의 적정환율은 작년 전반적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반면 실제환율은 금년 들어서도 급상승
- 4월 17일 현재 실제환율은 1,324.1원으로 실질실효환율 기준(1985년 경제기준) 적정 환율을 상회

<그림 14> 실제환율과 균형환율(실질실효환율 기준)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최근 경제현황에 대한 인식

가. 최근 설문조사 결과

- 최근 본원과 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행한 경기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설문응답자가 올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말이나 금년 초의 전망치보다 약 2% 포인트 낮아진 4%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었음.
-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로 ‘대외여건의 악화’를 들고 있고 그 다음으로 구조조정 부진과 내수부진을 성장률 하향조정的主要原因으로 보고 있음.
- 예상되는 경기반등의 모습은 저점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 반등시점이 늦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아울러 경기반등시점이 올 4/4분기 또는 내년이라고 보는 시각이 3/4분기라는 응답보다 더 많았음.

- 최근 일본 엔-달러 환율의 상승, 미국 경제의 불안, 그에 따른 1/4분기 수출의 저조 등이 많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음.
- 최근 수출이 저조한 상태에서 수출이 경기회복을 주도할 것이라는 응답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내수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아울러 대부분의 설문응답자들은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의 상한인 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연초이후에 엔-달러환율의 상승에 동조하여 7% 상승한 원-달러 환율을 제일 큰 물가 상승요인으로 여기고 있음.

2. 향후 경제정책 방향

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최근 경제의 문제점은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일어난 대외여건 악화와 그에 따른 경기전망 불확실성 증대에 있음. 대외여건변화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이런 상황일수록 구조조정 노력을 그 동안 천명한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궁극적으로 정책이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음.
- 최근 각계에서 경제현황을 위기상황이라고 규정짓고 정부의 특별한 정책대응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어 특별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동안 제기되고 있는 정책의 일관성 상실에 대

한 우려가 검증할 수 있음.

- 현상황은 특별한 ‘정부개입’을 필요로 하는 비상상황이 아니며 이럴 때일수록 ‘시장 경제 원리’라는 큰 틀의 원칙을 정부 스스로가 가장 존중하여야 할 기준으로 삼아 정부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한다면 실추된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이 정책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됨. 다만 향후 구조조정은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별 기업간, 개별 은행간의 철저한 차별화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함. 아울러 단기목표에 집착하는 경제개혁 대응방식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함. 즉, 경제개혁은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
- 기업·금융·공공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게 인원조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사회안정망의 강화를 위해 공적자금의 일부를 실업대책에 투입할 필요도 있음.

나. 제한적 경기조절정책지속

- 최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는 상대적으로 내수의 중요도를 높여줌. 따라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내수의 기반 확충을 위해 그 동안 수행되어온 정도의 경기조절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동안 이루어졌던 재정의 조기지출과 아울러 세수 규모를 크게 낮추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 부담을 낮추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시키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함. 이는 소비정상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연초이후 물가상승은 총수요와 전혀 무관한 요인들에 기인함을 감안하면 지금의 물가압력은 향후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임. 특히 환율이 안정된다면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한 통화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중요한 점은 경기조절을 위하여 특정한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즉 재정정책 수단과 통화정책 수단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최근과 같이 재정과 통화정책의 두 당국이 대치하는 듯한 양상은 바람직하지 않음.

다. 기업활동 활성화 대책강구

- 어려워진 경제여건은 통상적인 거시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그 동안의 각종 공적자금 투여 등으로 정부재정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재정정책 수단 동원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재정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여건임.
-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연초이후 지속된 물가불안은 인플레이션 타겟팅(Inflation Targeting)을 기치로 하는 한국은행의 정책 운용폭을 제약하고 있음. 이자율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의 BIS 8%, 기업들의 부채비율 200% 달성 때문에 과거처럼 은행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빌려서 투자를 할 엄두도 내고 있지 못함.
- 이러한 여건에서 경제활성화의 중요한 동인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서는데서 찾아야 할 것임. 이러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은 과거와 같은 특별한 단

기간의 세제상 특혜, 통화금융 및 재정정책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업활동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구체적으로 M&A나 스핀오프 등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조정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출자총액한도제도의 실시를 재검토한다거나, 지주회사설립 부채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부 록

경제정책정보

주요경제통계

경제정책정보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1/3	한국은행	<p>구조조정대상 기업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대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할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동 어음 할인실적에 대해 총액한도대출을 우대 지원 • 지원대상 : 구조조정 대상기업(11.3일 발표)이 발행한 어음 중 중소기업체가 보유한 상업어음을 구조조정조치 이후 금융기관이 신규로 할인 취급한 어음 • 지원한도 : 5천억원(기존의 금융기관별 한도중 5천억원을 별도로 운용) • 지원비용 : 금융기관별 상업어음 할인잔액의 50%이내 • 아울러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어음규모와 중소기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상황을 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를 늘리는 방안 검토 • 또한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공개시장조작 또는 유동성조절 대출제도를 활용하여 유동성을 적극 지원
11/17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	<p>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채권형펀드 10조원 추가 조성 추진(채신예금·보험 3조원, 연·기금 등 2조원,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5조원) • Primary CBO 제도의 신속적 운용 • 회생가능한 235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채권 은행단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점검 •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기 수립된 지원대책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점검 • 주채권은행 등이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유동성은 한국은행에서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통해 적극 지원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1/28	산업자원부	<p>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이 안정적인 무역수지 균형기조의 정착에 최대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 조망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동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동 법안은 부품·소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사업화,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 등 총 7장 43개 조문으로 구성 • 동 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계획임
12/6	한국은행	<p>기업구매자금대출 우대지원을 위한 총액한도 2조원으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구매자금대출이 더욱 활성화되어 새로운 상거래대금 결제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001년 1월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 우대지원을 위한 총액한도자금을 현재의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
	금융감독위원회	<p>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 출범, 우량은행간 합병, 서울은행 처리 및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추진
12/14	한국은행	<p>기업자금경색 완화대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대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잇따른 상호신용금고 영업정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거래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겪지 않도록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증액(7.6조원 → 9.6조원) •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유동성조절 대출한도를 현행 2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2/15	재정경제부	<p>외국환거래규정 개정(2001. 1. 1일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 1. 1일로 예정된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의 시행에 맞추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포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체제를 정비 • 주요 자유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개인의 대외채권 회수 의무 완화 ·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등 거주자의 대외지급한도 폐지 · 거주자의 보유목적 외화매입 한도 폐지 및 비거주자의 외화매입 자유화 · 비거주자의 국내예금·신탁거래 및 거주자의 해외예금·신탁거래 자유화 · 개인·비영리법인의 장·단기차입 허용 및 비거주자의 원화대출 한도 상향조정(1억원 → 10억원) 등 • 보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거래 은행제, 고액자금 지급시 한국은행 사전확인·신고제, 해외예금·신탁에 대한 잔액보고제,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 등
12/26	정부 및 금융감독 위원회	<p>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발행 원활화 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도래규모중 20%는 해당기업이 자체상환하고 나머지는 산업은행이 전액 우선 인수후 이중 7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Primary CBO 및 CLO에 편입하며, 20%는 채권은행이 인수하고, 나머지 10%는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 • 사업성은 있으나 Primary CBO에 편입되기 어려운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보증하는 방안을 강구
1/1	정부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시행령·규정 시행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5	한국은행	<p>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도입(2001. 2. 12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간 상거래대금 결제시 어음사용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음의 폐해를 줄이고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금융부담도 덜어주기 위하여 이미 시행 중인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와는 별도로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 이를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활성화
1/6	정부 및 한국은행	<p>IMF차입금 상환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F로부터 차입한 대기성차관 44.6억SDR(약 58억달러)를 금년 8월말 까지 상환 동 자금은 당초 금년 3월부터 상환이 시작되어 2004년 5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외환보유액 수준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나라의 위상을 고려 앞당겨 상환
1/16	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 위원회	<p>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의 기업자금 공급확대여건 조성 국고채 금리의 안정기조를 유지하여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은행수신금리인하 여건을 조성하여 은행의 수지를 개선하고 투신사 등 제2금융권에도 자금이 원활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함.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기업금융 취급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함과 아울러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소매금융중심은행의 여유자금을 흡수하여 기업금융중심은행을 지원 금융기관대출과 관련된 임직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책임도 완화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1/16	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서 면책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여 임직원의 대출업무 취급시 부담할 책임수준이 예측 가능하도록 함. • 금융기관 경영평가지 수익성을 보다 중시 • 신용보증을 확대 공급 : 금년중 최대 54조원을 공급
2/6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 위원회 등	<p>4대 부문 12개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및 사후 계획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투자자 및 IMF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 • 금융개혁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구축해 온 금융구조조정의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금융혁신 중심의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시장 경색 등 시장불안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시장안정 보완대책도 병행하기로 하였음. • 금융개혁의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의 기본틀이 마련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금융시장의 안정기반 확보되어 시장에 의한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이행 • 금융지주회사 출범과 대형 우량은행(국민·주택)간 합병 및 여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 앞으로 그동안 구축해온 금융구조조정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국제경쟁력과 신인도를 갖춘 선진화된 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연 월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대비(%)		US \$	전년 동 기 대 비 (%)				
1997년	5.0	6.6	10,307	3.5	1.5	-2.2	-8.7	23
1998년	-6.7	-7.4	6,723	-11.7	-0.4	-21.2	-38.8	-10.1
1999년	10.9	21.0	8,551	11.0	1.3	3.7	36.3	-10.3
2000년	8.7	15.4	9,628	7.1	1.3	11.0	34.3	-4.1
1998년2/4	-8.0	-10.7	-	-13.3	-1.0	-23.9	-46.5	-7.8
3/4	-8.1	-9.5	-	-12.5	-0.2	-22.4	-40.4	-11.6
4/4	-5.9	-4.2	-	-9.2	-1.1	-18.3	-28.0	-13.9
1999년1/4	5.8	10.0	-	7.9	0.6	-4.6	11.6	-13.5
2/4	11.2	20.9	-	10.9	1.7	4.2	35.6	-8.8
3/4	13.0	26.2	-	12.4	1.1	6.7	47.0	-9.5
4/4	13.0	26.4	-	12.8	1.7	7.2	53.0	-9.9
2000년1/4	12.6	22.3	-	10.8	1.5	21.9	62.6	-6.8
2/4	9.7	16.9	-	8.9	1.1	13.2	41.6	-4.2
3/4	9.2	17.7	-	5.7	0.5	10.5	31.9	-3.5
4/4	4.6	6.5	-	3.2	1.8	1.6	8.1	-2.5

무역 · 국제수지

연 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경 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원/달러	
1997년	1,361.6	5.0	1,446.2	-3.8	-31.8	-81.7	88.7	1,415.2
1998년	1,323.1	-2.8	932.8	-35.5	416.3	403.7	485.1	1,207.8
1999년	1,436.9	8.6	1,197.5	28.4	287.2	244.8	740.5	1,145.4
2000년	1,722.7	19.9	1,604.8	34.0	166.0	110.4	962.0	1,259.7
2000년 1월	121.6	31.4	126.0	46.0	6.4	2.9	767.9	1,122.1
2월	126.8	35.8	120.2	57.5	8.6	7.9	797.3	1,131.8
3월	144.3	23.8	142.1	52.7	9.4	2.6	836.5	1,108.3
4월	135.2	17.6	133.5	46.6	5.3	-5.5	846.1	1,110.3
5월	146.4	28.1	132.8	40.5	18.6	15.7	868.2	1,133.8
6월	152.5	19.0	131.8	29.2	22.1	17.1	901.8	1,114.8
7월	144.6	23.0	136.7	39.8	12.7	10.4	903.5	1,116.2
8월	147.9	30.1	134.4	36.4	17.9	9.0	914.3	1,108.8
9월	151.3	26.5	132.9	31.3	23.5	17.2	925.3	1,115.0
10월	152.5	13.4	141.0	24.2	13.7	10.2	927.0	1,136.7
11월	149.9	5.6	141.6	20.7	11.0	10.6	933.4	1,195.3
12월	149.8	0.1	141.8	4.7	17.0	12.4	962.0	1,259.7
2001년 1월	127.4	4.7	124.4	-1.2	4.5	6.5	954.2	1,265.5
2월	134.2	5.8	126.7	5.4	11.0	7.9	953.3	1,245.7
3월	143.4	-0.6	129.6	-8.8	-	-	944.4	1,328.0

주 :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

물가 · 실업 · 이자율

연 월	물 가 ²⁾		실업률	제조업 명목임금	10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2	MCT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1997년	3.9(10.9)	4.5(6.6)	2.6	5.2	19.2	15.3	13.39	654.5
1998년	12.2(3.6)	7.5(4.0)	6.8	-3.1	19.0	7.5	14.99	406.1
1999년	-2.1(0.9)	0.8(1.4)	6.3	14.9	27.9	7.7	8.86	806.8
2000년	2.0(1.7)	2.3(3.2)	4.1	8.6	30.3	14.4	9.25	734.2
2000년 1월	2.0	1.6	5.3	22.9	27.6	12.2	10.25	952.5
2월	2.1	1.4	5.3	3.4	28.1	13.7	10.01	902.7
3월	2.4	1.6	4.7	4.6	27.2	13.7	10.00	878.4
4월	1.9	1.0	4.1	11.2	29.6	15.4	9.97	779.8
5월	1.2	1.1	3.7	7.9	33.6	16.2	9.91	720.8
6월	2.6	2.2	3.6	7.1	36.3	17.3	9.72	795.1
7월	2.9	2.9	3.6	12.4	37.8	17.5	9.13	794.1
8월	2.5	2.7	3.7	19.4	34.9	15.7	9.00	720.4
9월	2.5	3.9	3.6	2.5	30.4	13.9	9.00	622.9
10월	1.8	2.8	3.4	10.4	28.3	13.3	8.72	548.1
11월	1.3	2.6	3.6	7.4	25.5	11.8	8.41	544.1
12월	1.7	3.2	4.1	1.4	24.5	12.0	8.12	526.4
2001년 1월	2.3	4.2	4.6	28.6	26.1	13.3	7.76	585.0
2월	2.4	4.2	5.0	-	20.7	10.7	6.79	593.6
3월	2.8	4.4	4.8	-	17.8	9.3	7.16	543.6

주 : 2)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 평균기준

산업활동

연 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 기성	건축허가면적	
									전체	주거용
전년동기대비(%)										
1997년	4.7	79.2	3.2	-1.6	3.3	-6.4	5.4	-	-0.4	2.6
1998년	-6.5	68.0	-12.7	-21.0	-31.0	-37.7	-42.6	-	-55.0	-50.3
1999년	24.2	76.5	13.0	21.1	30.9	43.5	0.8	1.2	42.3	43.2
2000년	16.8	78.3	9.8	6.4	11.7	30.1	15.1	-3.1	11.8	-7.4
1999년 12월	24.6	80.6	14.9	20.1	13.6	69.9	8.9	-3.1	172.3	200.9
2000년 1월	28.1	80.1	17.5	21.1	13.7	58.8	101.5	-3.5	89.4	62.1
2월	25.7	78.6	14.5	19.2	17.2	70.3	61.7	-12.9	67.1	59.8
3월	17.8	79.4	13.5	13.5	16.0	51.2	55.7	-3.2	108.4	87.2
4월	17.0	75.8	12.2	16.6	26.7	40.9	-4.4	-6.6	110.1	91.0
5월	20.3	79.6	15.8	19.8	12.0	33.3	18.8	1.1	-9.3	-30.4
6월	18.0	81.1	11.8	4.3	-10.0	30.4	31.9	-1.8	25.2	11.4
7월	19.5	80.6	8.4	1.1	17.6	30.4	12.7	-0.3	32.6	27.3
8월	24.8	81.5	9.2	2.4	4.7	39.2	43.0	-2.6	55.0	64.7
9월	15.2	77.7	6.4	-8.3	-1.1	19.2	-18.4	-6.1	16.0	-5.2
10월	11.7	76.0	5.3	-0.2	-4.9	22.2	-16.8	-0.7	-7.5	-19.4
11월	6.5	75.2	4.0	1.0	15.2	-1.1	-7.5	-2.9	-23.1	-42.9
12월	4.7	73.9	2.3	-6.2	41.7	-2.2	0.7	-0.1	-56.7	-64.8
2001년 1월	0.1	73.9	2.2	-10.8	-14.5	-8.8	-32.1	-0.6	2.7	-8.1
2월	8.6	74.9	1.3	-4.7	2.8	-5.3	-14.6	5.8	-4.8	-32.7

주 :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제외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권1쇄 인쇄/2001년 4월 26일

1권1쇄 발행/2001년 4월 27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1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